

国立国会
63.11.28
図書

福音新聞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猿樂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二九局(2915)番
兼人 吳 九 台 澤
編發主 田 榮 澤

日帝壓迫時の 神社參拜決議取消

總會長に 李元榮牧師

長老會安東總會閉會

기보한 바와 같이 大韓會수교 長老會 第三十九回 總會는 지난 四月 十三日 午後七時 慶北安東教會에서 開會되었는데 同總會가 다시 第一 회인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同教會 六十萬信徒의 注意를 얻어 神學 聖典 閉幕日 첫인도, 特記할 만한 點은 過去 十六年前 日帝 獨斷時 代인 一九三八年 九月에 開會된 第二十七回 總會「神社參拜決議案」을 이회 總會의 이결으로 取消聲明을發表한 것이라 하겠다. 總會長에는 李元榮牧師, 副會長에는 韓景教牧師가 各各 被選되었다.

同總會에는 牧師 八十五名 長老 七十八名 宣道사 十三名 合 百七十六名 參席 되었다. 그러나 本浦老會, 開會에 於하여 世界의인 부흥사 韓 田博士을 本청하여 宣道 司를 맡게 하고 集會를 계속하면 四日間에 걸치어 開會 되었는데 本浦老會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는 大體로 平穩 한 가운데 同總會는 終幕 되었다. 그러나 本浦老會, 開會에 於하여 世界의인 부흥사 韓 田博士을 本청하여 宣道 司를 맡게 하고 集會를 계속하면 四日間에 걸치어 開會 되었는데 本浦老會에 關한 問題에 對하여는 大體로 平穩 한 가운데 同總會는 終幕 되었다.

基督教은壽府會議에關心多大

WCC壽府서協議

方今 주네브에서 外相會議 가 開催되어 있는데, 世界 基督教界에서도 이 會議에 對한 關心은 多大하다. 世 國際委員會 幹事 韓德博

주네브회의에바람

한국의 휴전 후에 열리어야 할 정치회의는, 지난 유엔 총회에서 인도의 참가 문제로 양진영의 합의를 보지 못한 채로 있다가 지난 본담에 독일 배를린에서 열린 외상회의에서 중공을 포함한 국제회의를 주네브에서 열기로 하였는데, 그 주네브 회의는 드디어 지난 四月 二十六일부터 개막되었다. 회의의 초두에 한 변 한국 외상의 연설을 개봉으로 양 진영의 선포(舌戰)은 서평은 커녕 조금도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는 응수였었다. 한

지나 휴전 문제로 돌아가고 만 느낌이 없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또 한국 문제는 워싱턴에서나 말린다는 형식으로 주네브에서도 건드리지 못하고 말게 될 가능성이 눈에 보이 는 것 같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九十日 기한으로 아무런 해결책이 안 보일 때에는 독자적 행동을 취한다고 하여 왔다. 한국의 휴전에는 당초부터 한국과 우방제국의 사이에 그 생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남북이 분단 된 채로의 휴전은 있을 수 없으며, 언제 또 남침해 올지 모르는 전투의 휴식이라고 보

아 반대... 서는 동... 가 전투... 전(熱戰) 서였다. 그 지역 방위... 또 앞으로... 수가... 세가... TO(東東) 하여 한... 로 유지... 다. 뿐만... 에 대한... 보복수단... 표시를... 이리하... 진영에서

士(美)는 同委員長 케네 스 그라브스(英)과 함께 이변에 주네브에 當面하였 다. 이것은 주네브會議에 多大한 關心을 가지고 協 議하기 위함인데, 兩氏는, 「會議에 出席중인 各國의 크리스찬 代表는 會議가 成功되기 위하여 일본의 이해와 동정을 가져오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會議 成功시키기 爲해 是는 參加 各代表가 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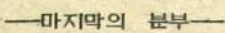
水爆에關한 여반스톤大會

기보 美國의 水素彈實驗에 의한 日本의 被災에 對하 여 日本基督教協議會에서 美NCC를 通하여 이리 한 條事가 設도록 全世界



國際救連盟 (IMC)에서

各各 오느 八月의 世界大
 會 예반스톤에서 이예
 대한 聲明書를 發表하게
 할 터이라는 要旨의 總幹
 事 비자, 토트트博士의 聲
 明書와 오느 七月의 常議
 員會에서 이를 取扱하여
 國際管理에 對한 진지한
 考慮가 行해지도록 하겠다
 는 I M C 總幹事 란손氏
 의 聲明書가 到着하였다
 한다. (基通)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태 28:18-20)

有能한行政家、優秀한音樂家

屈指의 基督敎敎派인 被宣軍의 萬國參謀總長(大將)인 卞世昌은 오산대將의 停年慶退는 因하야 그 役任者로 選出하야 爲營 最高會議員인 四十六名으로 構成인 最高會議가 己히 四月二十九日午後二時에 英國公使에서 開催되었는데, 到三三二, 三三三 新大將을 萬國總司令官으로 選出하엿다. 故口.

이 最高會議는 全世界 各
軍國을 代表하는 四十六名
의 將官으로써 構成되었
는데, 지난 五月 十一日
規定의 三分之二 以上の
多數의 投票으로써 溫프레드
키칭 新大將이 萬國總司令
官으로 選出된 것이다.

이 會議는 選舉를 實施하
기 前의 數日間을 包含한
명상과 正統스런 新總로
보내어 그를 심판 위에
하나라의 인도하심을 구하
였다.

키칭 新大將은 故 키칭中
將의 令息인데, 故人은 故
世軍創立者 윌리엄, 부
대 그 아들 부대장, 부대
兩大將과 敎世軍 創立時代
부터 親交가 깊었던 이이

五月
多摩川傳道所獻堂式

在日韓基 多摩川傳道所(東京都北多摩郡調布町下石原一六七五、目立 李仁夏牧師)에서는 今春 예배당을 新築 竣切하였는데, 그 獻堂式을 來二十三日午後三時 李牧師의 司式으로 舉行한다고 한다.

同傳道所는 一九五〇年 東京教會의 開拓傳道所로 設

中 예배 처소가 없어서 신자의 집에서 이 집 집 옮겨 가면서 모이다가 二年前에는 작은 오막살이라도 禮拜堂을 願하여 今春에 禮拜堂이 竣功된 것이다. 現在 主日예배 約二〇名、主日學校 約五〇名 集會.

大垣教會

있던 李牧師의 꾸준한 傳
道로 集會를 계속해 왔었
는데, 그 후 李牧師는 神
學卒業하고 계속하여 同傳
道所 담임으로 목회하는



기보, 관동지방회 주회, 특별 전도회 개최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4일(토) 17일까지는 대전도회를 개최하거니와 동시에 대垣교회부인 전도회에서는 동회 주회로 특별사경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강사로는 전에 한국에서 일한 미북장로교 목사요, 지금 橫濱 한국교회에 함대에서 전도 중인 박우만 부인을 청하기로

查經會開催

되었다 한다.

下關教會創立

二十五週年記念式

在日大韓基督敎 下關敎會
(下關市東大坪町一四四)에
서는 同敎會創立二十五週年
을 맞이하여 五月二十三日
主日에 그 記念禮拜와 同
時에 洗禮聖式式도 舉行한
다고 한다.



正領口。
(解説)

○세월
도(年度)
가 시작
되는지
는四月



○새벽
계각국의 각 교회 총회
가 뛰어들어 열렸는데 그
중 우리 제일 한국교회
의 중심이 가장 강했던
것은 우리 제일 교회의
모세라고도 할 만함 본국
대장감 양교회를 비롯
하는 각 교회의 총회였다.
○특히 六十만 신도를 포
섭하고 있다 하는 교
주 대항 예수교 장로회
제三十九회 총회는 지난
달 二十三日 안동에서 열린
터 그리 큰 분쟁 없이
끝났다 한다.

○통일회 제二十七회 총회
를 앞두고 당시의 신문
논평은 「二十七이란 숫
자는 신약의 제二十七권인
목시서를 의미하며, 재앙과
고난과 심판이 막을 정
조라고 하더니 그 결과는
파멸 그러하였었다. 통총회
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목자들은 이방의 신 앞에
불려 갔으며 양떼는 흩어
졌었다.

○제三十八회 총회 때는
三八선을 의미하는 총회가
고를 하더니 파열 교회는
갈라지고 쪼개져 찢겼다.
○이것은 풀어도 풀이지
자상의 우연한 일치를 말
할이나 다름 하나 풀어도
불안이다. 「三九」는 을
법시대 구약의 마지막이며
이로써 까닭을 밝히고 경
우를 따지는 시대를 벗어
나 신앙의 은혜시대로
머가니 바란다.

○전세계의 교회는 예루살
렘을 중심으로 타교파 간
에서도 일치점을 발견하여
합동이 추진되어 가는 이
때 한 교파 안에서 분열
되어 나가는 것은 세계에
서 그 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 金奉花 全聖均 金鎬在 二代表 맞아

韓國 Y에서 歡迎懇談會

재일 한국 YMCA (東京都千代田區神田狹樂町ノ四) 정례회에서
五月五日 定例會合에서는 「東南아시아 基督教學生 協議會」
를 설립 지난 반석大會에 참가하고 돌아오는 우리 代表 金奉花嬢, 全聖均君, 金在範
君, 三人을 맞아 歡迎談話를 하여 同大會報告와 參加 所感을 듣게
되었다.



東南 아세아 基督學生 聯合會는 지난 四月一日부터 同二十八日까지 태國曼谷에서 열리었는데 주로 東南 아세아 各國의 基督學生이 參加하였는데, 地域의 으로는 韓國은 包含되지 않지마는 特別參加하게 된 것이었다.

同大會에서는 에큐메니칼, 워크, 少年村에서 아침부터 시작하여 날마다 八時間의 奉任勞動을 하면서 오후로는 고명한 인사를 本



東洋의 希望은 그리스도로 하나됨

金奉花代表談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운 태국에서 하루 여덟
시간이란 긴 시간을 소년
촌에서 농사의 일을 하기
란 참으로 신장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번의 회의를 통하여 아세
아는 꼭 가까운 이웃이라
는 것을 느꼈으며, 아세아
인에게 있어서의 공통된
점은 빈곤과, 서양인이 모
를 고통이 있는 것을 느
꼈으며 지도자의 부족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민주주의라는 아이데아가
우리의 의식에는 새로와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민주
주의에 익숙하지 않은 것
을 느꼈다.

태국은 너무 더워서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그 국민
은 불교국이면서 불교에나
또는 정치에는 무관심하였
다. 일이 없는 국민인 것
을 느끼게 된다. 우리 한
국은 절망에 빠진 것 같
으나, 우리에게도 열심이
있고 희망이 있다. 다만
그 열심을 잘 발휘시킬
만한 지도자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저 인도네
시아 그 밖의 나라에 비
하여 우리는 민족과 언어
가 하나인 것이 우수한 조

三代表報告談

우리에게는 希望이 있다

東洋의希望은그리스도로하나됨

金奉花代表談

한국의나 일본보다 훨씬 더운 태국에서 하루 여덟 시간이란 긴 시간을 소년촌에서 봉사의 일을 하기란 참으로 신앙이 아니면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번의 회의를 통하여 아세안은 딱 가까운 이웃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아세아인에게 있어서의 공통된 점은 빈곤과, 서양인이 모를 고통이 있는 것을 느꼈으며 지도자의 부족을 느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민주의라는 아이데아가 우리의 의식에는 새로와서

을 느꼈다. 태국은 너무 더워서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그 국민은 불교국이면서 불교에나 또는 정치에는 무관심하였 다. 일이 없는 국민인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 한국은 절망에 빠진 것 같으나, 우리에게는 열심이 있고 희망이 있다. 다만 그 열심을 잘 발휘시킬 만한 지도자가 필요함을 느꼈다. 그리고 저 인도네시아 그 밖의 나라에 비하여 우리는 민족과 언어가 하나인 것이 우수한 조

직장에 참편

최창익의 12월 12일

이 땅 일본에서
우리 나라 사람
은 외국인이이라
하여 위로는 관
리, 공공사업에서
부터 아래로는
정거장에서 「벤
또」를 파는 사
람까지 한 가지
도 해 면을 노
릇이 없는 이 땅이라
자연 한다는 것이 해방
후로 말하면 「야마네코」
요새로 말하면 「니코용」
등모로서 돈을 모아 실
업가가 되어도 우리 사
람은 기술도 없고 성실
하지 않아 거지반 일본



인을 쓰고 있는 현상인 데, 그렇다고 해서 밤에 도 누르고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일본인의 학교, 병원, 저렴한 회사에서 일본 사람 이상으로 총

애(愛)를 받는 우리 젊은 「젊편」이 있다. 오늘 소개하는 韓嬋도 그 젊은 수에 뽑힌 우리의 「젊편」이다.

면저 우리 대한기독교
 小倉 교회와 小倉 (敎役) 장
 일을 보시는 韓延洙 장
 로를 말하는게 辭를 것
 이다. 嬢은
 그 만파님.
 小倉에 있
 는 西南女
 子大學을
 卒業하고
 折尾女子高
 等學校에서
 敎편을 잡
 고 있다는
 데, 담당 과목은 英語.
 주일이면 小倉教會에서
 아버지들 도와 많은 수
 고를 하고 있다.

折尾女高에就任한
韓桂珠嬢

우리와關係 열은英國

韓國에의 새인식에노력

大韓聖書公會 任英彬牧師 通信

이년에 英國 런던 및 하그에서 열릴 聖書公會(聖書協會)創立 百五十年祭에
參加하기 爲하여 韓國聖書公會總務 任英仁牧師는 지난 四月二十四日 東京을 거
쳐 出發하였다 함은 기보한 바이나, 그후 旅中 健康히 英國南部 各地를 巡回
하며 講道를 하고 있다는 다음과 같은 來信이 到着하였다。

二月來에 갑자기 떠난 후
벌써 두어달이나 지났을디
다. 그 동안 나는 여기
와서 영국 남쪽 十七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五十一
회의 강연을 하였읍니다.
청중은 제일 적게 모인
때가 八十명이요 제일 많
이 모인 때가 五百명이었
읍니다. 어디를 가나 대한
영이었습니다. 한국은 성
을 요구하고, 한국민은 성
경에서 희망과 생명과 위
로를 얻는다고 하였읍니다.
한국전란 후에 여기 사람
들도 한국을 인식하게 되
었으나, 아직 그 인식이
보잘것 없습니다. 이번 이
강연으로 그들이 한국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
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은 정돈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
는 땅도 그렇고 사람 사



김리교... 그리고...
정신적...
것을...
다.

全聖代表談

특히 동...
으로 할...
다. 현대...
고 생애...
현대는...
그들에...
것을 이...
그리고...
해결...
때는 서로...
있다는...
그리스도...
양 의 화...
통하여...
는 것이...
입니다.

金在鎰代表談

기독교는...
크리스천...
했다. ...
보다 나...
왜 이런...
가 생각...
모든 것...
우리에게...
가지 부...
라고 생...

京都、大阪兩教會

連合諸職親睦會

교회 재직자들의 교회들...
사람에 있어서의 성의와...
열심을 북돋우고 교회살림...
하는 데의 가지가지의...



합동 재직 친목회가 지난...
四月二十六、七日 京都...
서 개최되었다 한다.
양 교회의 목사 이하 거...
의 재직 친목이 한 자리...
에 회합하여 식사할 길이...
하루친목회를 개최한 것은...
이런이 처음인데, 먼저...
十六日 京都교회에 합숙하...
연전 여러가지 다례로 온...
순서의 친목회가 있었으며...
이튿날은 일동이 「近江八景」...
이라는 遊樂會를 한 후...
를 遊樂하며 세운은 회고...
은회를 받았다고 한다.
(사진은 등 기년사진)

京都僑胞團體에 教會人物進出

在日僑胞社會의 精神的支柱...
가 되며, 그 指導的任務을...
되고 있는 것은 在日우리...
基督敎會이고, 그 敎會人物...
일 것이며 우리 敎會人物...
이 各地方의 各機關에 進...
出하여 指導的任務을 遂行...
하고 있음을 보는 바이나...
元在日韓國居留民團京都府本...
部團長으로 視察하던 京都...
敎會 金在和長老가 同本部...
團長으로 前 同議長 同敎...
會 李鍾海執事가 同副團長...
으로 被選되어 同本部가

子弟引導한 어머니表彰 五人 京都敎會

해마다 각 교회에서 다채...
로운 프로그램을 지키는...
어머니 주일(지난 五月...
九日 주일)은 금년에 도...
각 교회에서 의 깊게...
지켰는데 특히 京都 敎會...
에서는 예배 끝난 후, 동...
교회 유년 주일학교 주최...
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가...
지고 「어머니 주일 감사...
회」를 개최하였다 한다.
순서에 따라 어머니의 은...
공과 수고를 치하 위로하...
는 유년 주일학생들의 유...
희, 독창, 감사 인사 등이...
있었으며, 특히 어머니로서...
그 자제를 양성 이상 하

스님·이 基督敎觀察

日本 鎌倉(가마구라)에...
있는 유명한 佛寺인 鎌倉...
圓覺寺의 管長 朝日泰宗...
는 지금 美國駐日大使館...
의 人物交際計劃에 依하여...
約三個月予定으로 美國觀察...
를 하기 위하여 今月初에...
出發하였다 한다.
隨從는 美國...
에 滞在 中...
主로 美國의...
神學界, 基督...
敎指導者들과...
會談하며 宗...
敎上の儀式慣...
習等을觀察할...
것이라고 한다.



上海刑務所에收容中의 카톨릭 三神父追放

中國上海의 刑務所에서 三...
年가까이 收容되어 있던...
로마 카톨릭神父 三名은...
일마 前 共產主義者에 依...
하여 裁判을 받아 國外追...
放을 받았다 한다. 이 神...
父들은 前에 上海公敎中央...

中共서宣敎師 集團處刑

五月四日 주네브에서의...
傳이라고 U.S.I.S의 傳하...
는 바에 의하면, 주네브...
議의 美代表團에서는 四日...
北京에서 二十九名의 中國...
人基督敎宣敎師가 集團處刑...
되었다는 電報을 받았다...
한다.
이 電報는 뉴욕의 美國基...
督敎協會會(N.O.C.)에서...
의 電報인데, 電文에 依하...
면 處刑된 것은 四月三十...
日이며 암살도라는 敎師가...
먼저 射殺당하고 다음에...
다른 二十八名의 宣敎師가...
한꺼번에 處刑당하였다 한...
다.
美代表團에서는 事件의 詳...
細에 대한 報告을 要請하...
었다 한다. (U.S.I.S.)

어머니와會食

그리고 등 교회의 이 어...
머니 주일 행사는 국제간...
에도 큰 감명을 주었다 한다

배 시간애 「十자가 밑에...
어머니 마리아」라는 제목...
의 金典敎 목사의 설교에...
일동은 깊은 감명을 받았...
으며, 예배가 끝난 후 아...
래송에서 어머니의 수고를...
위로하는 간담과 어머니와...
한 자리에서 하는 食事로...
써 이 날을 의미 있게...
지켰다.
어머니 주일의 유래...
지금부터 약 五十年 전에...
북 아메리카 등해안의 「...
스타」라는 작은 초의 교...
회에 二十六년 동안이나...
주일 학교 교사들 한 자...
비스라는 부인이 있었다.
어느 주일 날 아침 그는...
정한 것이다.

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잠언 30
 章/9節은 좀 問題가 되어 우리나라
 翻譯에서도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翻譯
 되어 있다.

(가) 男女가 同寢을 자취
 (나) 男子와 女子가 同寢을 자취
 以上인데 原文을 보면 同寢했다든지 同
 寢을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은 없고 그저
 “알마—”라는 말 앞에 있는 前置詞로
 以上과 같은 翻譯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即 우리나라 翻譯에서는 이 자취를 道
 德的 善惡問題에 關係시키어 解釋하고
 있으나 잠언記者는 /9節全體에서 道德
 的 善惡問題를 云々하고 있다고는 볼수
 없다. 그것은 /9節上半節에 나오는 세
 가지의 자취를 생각해 보아도 明白히
 알수 있다.

제한한 “베루라—”(בְּרוּרָא)라는 말이
 있어 旧約聖經에 數次 使用되어 있으나
 어느 곳을 보드래도 그저 男子와 無關係
 인 處女라는 意味로써 使用되어 있다
 여기에 翻譯에서는 童女라는 意味로써
 關係가 없다는 말이다.
 (“베루라—” 解釋에 關해서는 後日에
 다시 論究하려고 한다.)

다음은 童女를 表示하는 “알루다—”
 (אֲלֻדָּ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주로
 어린이를 意味하는 말이고 그리고 普
 通 一般의으로 女性을 總稱하는 “내아
 라—”(נְעָרָא)라고 하는 말이 있는
 데 이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廣義로 使
 用되어 있어 “임마누엘” 予言에는 不
 當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계속—

특별 전도 일지

조선반도의 1호

특별 전도

지난 4월 9일부터 시작한
 西南地方 특별 전도는 우리 사
 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효
 과를 나타내 주었다. 4월 10일과 11
 일로 나타날 것을 믿는 바이다.
 이 번 전도에 있어 표명적으로

나타난 효과라고 할 만한 것은, (1) 재일 교도는 다 폭력적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국제간에 인식시킨 것, (2) 韓日人 간에 우리 基督教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 것, (3) 각 교회의 전도에 대한 성의와 힘을 격려시킨 것 들일 것이다.

일행—김우현 목사, 박명준 목사, 유석준 장로, 김정국 집사—은 두 사람씩 나누어 다음 지방으로 앞서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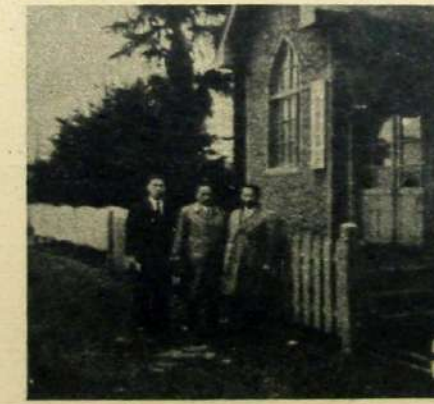
下關교회의 교우들이 곳곳에 널리 선전을 한 효과 있어 130명 씩이나 모였는데, 많이 모이기로는 해방 후 처음이라고, 수송 관계로 영화가 늦게 도착되어 예정에 어긋나 미안함을 느꼈다.
 ○4월 10日 小倉市, 折尾市.

비가 내렸으나 예정대로 진행 특
 히 小倉은 선전이 부족했음을느낌
 ○4월 11日 若松市 교회 없는
 곳이나 長老의 수고로 市公會
 에서 200여명이 모였으며, 이곳
 同題들은 時會의 教會設立을 要望
 하고 있다고 하였다.



(사진) (1) 若松傳道所 마치고 旅舍에서, (2) 折尾 傳道所에서, (3) 福岡 教會 앞에서.

하고 같이하기도 하면서 밤으로는 전도 집회를 열고 낮으로는 개인 방문 전도에 주력하였는데, 영화, 위대한 힘, 방랑의 아들 등의 상영은 가는 곳마다 깊은 감명을 주었으며, 특히 청중에게 음악을 들려 주는



음악가와 같이 가야 할 것을 통감하였다. 이하는 일행이 본 각 지방의 표정이다.
 ○4월 9日 下關市



(사진은 동전사)

大垣교회 홍영기(洪永其) 집사는 이번에 소명감을 절실히 느낀 바 있어 그의 경명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가족과도 떠나서 神戶改革派神學에 입학하였다.

동전사는 혼자서 배움의 소명감(召命感)을 깊이 느낀 바 있어 그 경명하던 사업체 전부를 정리하고 가족과 떠나 신학에 입학 공부중이라 한다.

大垣教會 洪永其執事 事業體整理並神學入學

大垣교회 홍영기(洪永其) 집사는 이번에 소명감을 절실히 느낀 바 있어 그의 경명하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가족과도 떠나서 神戶改革派神學에 입학하였다.

동전사는 혼자서 배움의 소명감(召命感)을 깊이 느낀 바 있어 그 경명하던 사업체 전부를 정리하고 가족과 떠나 신학에 입학 공부중이라 한다.

하루 가느다는 생활을 더 리속에 그려본다. 꼭 피로로 일일이다. 그들은 여가서 아무런 항소적충청도 못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는 인생을 바로 보기도 쉽지 않다.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은 좀 더 넓은 세계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을 총괄할 때 생이 얼마나 값있고 중무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어느 시인이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보고 楚越江南을 夢土라고 하였거니와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인생을 대관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유익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옛적에 아랍이란 청년은 자기의 말형인 여자와 함께 부어한 부모의 슬하에서 평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는 아직도 고상한 이상은 없었다. 그의 특장은 아버지의 축복을 얻어서 재산 을 상속받고 축복의 심려 를 자기 손에 쥐는 것이 었다. 그의 소망은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그의 생각은 인습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는 생을 적게 보았고 좁게 보았다. 그렇

기 때문에 사람이 적었고 작은 생활을 하였다. 그가 생각할 가치있는 크게 살기가 쉬우나 작은 생활을 가지는 크게 살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는 뜻을 한 그것을 가지고 행한 사치를 욕망을 받으려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다. 그러다가 그는 부모와 고향을 떠나 멀리 다른 지방으로 피신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정처 없이 집을 떠나 「세권」이란 산물을 지나가 해가 저물어 그곳에서 들을 버려 삼아 드러누웠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이 산물에서 그는 비로소 하늘이 넓은 것을 깨달았고 좁은 마음을 잃어서 영계의 신비를 보았다. 고향밖에는 살 곳이 없다는 말았던 야곱은 관 위에서 나서 그곳에 재단을 쌓고 뜻있는 생활을 하기로 하느님께 맹세를 하였다. 이때부터 그는 큰 도량이 있는 인물이 되었다.

우리는 인생을 좁게 보기 때문에 비열한 행동을 한다. 인생을 부분적으로 보 기 때문에 다름과 질투가 생긴다. 인생을 대관하라. 넓고 큰 마음을 소유하자 영원한 값이 있는 일을 찾아 보자.

가느다는 생활을 더 리속에 그려본다. 꼭 피로로 일일이다. 그들은 여가서 아무런 항소적충청도 못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서는 인생을 바로 보기도 쉽지 않다.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들은 좀 더 넓은 세계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생을 총괄할 때 생이 얼마나 값있고 중무한 것임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어느 시인이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 보고 楚越江南을 夢土라고 하였거니와 우리는 신앙의 세계에서 인생을 대관하여 모든 것이 합동하여서 유익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

共産主義란 무엇인가 (2)

— 共産主義에對한基督敎의對答 —

二 경제적 이론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모
든 특질을 세밀히 분석하
였다. 그는 세계에서 모든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인
간의 노동(勞動)이라고
하였다. 노동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 이른데
면 공기나 물 같은 것은
가치가 없다 하였다. 가치
가 있는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계도 역시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의
결과이며, 공장에서 생산하
는 생산물의 가치를 결정
하는 것도 노동의 작고
큰이라 하였다. 그러나, 노
동자들은 이 생산물에 대
하여 충분한 가치를 받지
못한다. 가치의 일부는 공

詩 임프랑프투

朴和穆

나의 肉體가 왜 말라가는가?
왜 나의 肉體가 하염 없이 말라가는가? 그리고
나의 靈魂이 왜 여위어가는가?
왜 飢餓 갈대처럼 숨 없이 여위어간단 말인
가? 나의 靈魂이 나의 靈魂이.....

나의 視聽은 遠近의 分別을 모르고, 나의 두
귀가 聾한 耳疾症을 이르켰으니,
이 固疾을 또 어느 病院에 가서 治療한단 말
인가?

雪氏零下九度の 冷冷한 朝夕에는
이건 또 氣管炎까지 생겨
呼吸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기만하니
인젠 世上의 공기조차 混濁해졌단 말인가?

나의 은근한 벗이며,
내가 나의 미운 목물을 빌려
어미 앞은 땅오기처럼 고단한 夕陽에 서서
목숨 發聲을 못 없는 소리를 한다고 비웃지
말라,

미상들 이 單符符들의 외로운 旋律은 世上 어
느 政治家와 執權者들을
조그만 치도 무엇을 느끼게 못하긴 하나.....

아. 나의 病은 肉體는 檢査問에
立體性을 잃고 단 黒白의 映面으로써, 그 殘像도
實存意識을 昏迷해버렸나보다,

이런 孤獨만이 오 가는 날에,
나의 은밀한 아름다운 벗이며,
그대 白魚같은 열손가락으로 피마노의 八十五鍵
을 자재로히 두기여서,
저 베트오번의 月光奏鳴曲을 울려라.

나로하여금 煩悩의 마음을 다사리어,
다시 한번 더 나의 작은 하늘에 띄어리니

한글 교실

(제 46 시간) 張 曉

뒋가지(接尾辭)가 붙어서
뒋이씨(用言)가 된 것
— 계속

(지난 시간에 계속하여, 아래
와 같은 말들은 그 어원(語
源)을 밝히어 적지 않을 것
입니다)

1. 뒋소리(뒋받침의 끝 소
리)가 나지 않는 것

- 골막하다 (골의 ㅁ이)
- 넙따랗다 (넙의 ㅁ이)
- 넙적하다 (넙의 ㅁ이)
- 넙넙하다 (넙의 ㅁ이)
- 말끔하다 (말의 ㄱ이)
- 말쑥하다 (말의 ㄱ이)
- 말짭하다 (말의 ㄱ의)
- 실쑥하다 (실의 ㅁ이)
- 실끔하다 (실의 ㅁ이)
- 활쑥활쑥하다 (활의 ㅁ이)
- 알쑥하다 (알의 ㅁ이)

“넙적하다”보다는 “넙적하다”
가 그 뜻을 똑똑히 드러내지
만, 그렇다고 해서 따라서 일
률적으로 “넙적하다”로 적는
다면 도리어 무슨 말인지 알
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마는, 틀
리기 쉬운 것이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글 교실 제
20시간 및 제44 시간에서
말한 “하다, 이다, 우다.....”
같은 것이 붙어서 쓰이는 것
과 섞갈리기 쉬우니, 뜻을 잘
생각하여 서로 구별하여 적어
야 합니다.

고침다(改)
((곧힌다×(使直)→곧춘다
바친다(獻)
바친다(使受)

정경자인 자본가에게
지불되는데, 가치의 이 부
분을 그들은 자기들의 이
윤(利潤)이라고 하고 있
다. 마르크스는, 자본가는
노동자의 권리에 속한 것
을 빼앗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기계가 많고 공장이 크
면 클수록 자본가는 더
많은 이윤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점점 커가
는 사업체와 공장을 볼 수 있는
것이요, 이리하여 자본가는
그 경쟁자를 그 사업에서
꽃아 내려고 한다. 그 결
과는 소수의 자본가 이외
에는 다 사업에서 쫓겨나
받아 남은 자본가만이 그
나라의 경제생활의 태반을
통제하는 독점을 하게 된
다. 자본가 계급은 점점
적어지고 무로레타리아트가
많아져 실제로는 전 인구
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다.

자본가는 점점 부해가
고 노동자는 점점 가난해
갈 것이다. 왜냐 하면 그
들은 그들이 만들어 내는
물건의 가치를 충분히 받
지 못하기 때문에 구매력
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팔
리지 않는 물건이 점점
쌓이고 자본가들은 이 팔
리지 않는 물건을 처리하
기 위하여 후진 국가에
억지로 팔게 된다. 그 결
과로 인하여 제국주의 전
정과 정복이 계속된다. 팔
지 못한 그 이상 팔리지 않
기 때문에 자본가는 공장
을 닫고 생산을 중지하고
남은 물건이 팔리기를 기
다리는 때가 온다. 많은
공장이 이렇게 되면 그
결과로 공장(空廠)이 일
어나 數百萬의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경제적 조적
이 정지되고 만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은
세밀한 통찰로써 자본주의
의 상속기의 특유한 공황
을 예언하였다. 그는 또
이러한 재난이 오는가
에 대해 가장 확실한 예
언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노동자의 운명이 참정 아
화되어 간다고 생각한 점
에 오류가 있었다. 그는
노동조합 운동을 생각 못
했는데, 이 운동은 생산력
의 증대와 함께 자본주의
가 진전됨에 따라 노동자
의 운명은 점점 높아지
가는 임금(賃金)과 개선
되어 가는 생활 조건이
부여되어 간다. 그는 또
물건의 가치를 그가 예상
하던 것과 같은 정도의
충분한 발전을 억제하리라
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고
난을 구제함에 있어서 노
동조합이나, 합법적인 점진
적 개혁으로 하려고 하였고
반면에 혁명으로 하려고
파괴한 혁명으로 하려고
모구하였다. 「만약의 노동
자여, 단결하라. 재란은 최
사슬 밖에 손실할 아무
것도 있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전부의 부르
짖음이었다. 그는, 무로레타
리아트는 정부를 전복하고
정부의 힘으로 공장을
수하여 모든 사람의 이익
을 위하여 운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모든 생산
수단—토지, 도구, 공장 등
지금까지 사유의 물건—
을 소유할 것이며, 자본가
에 이윤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생산 파제의 필요도
없으며, 정부에 의하여 통
제하므로 인민의 필요에
만족시킬 것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정부는
재산소유자가 노동자를 누
르기 위한 위원회인데, 혁
명이 와서 노동자가 정부
를 빼앗으면, 정부는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존
재하게 된다고 한다. 마르
크스는, 이러한 혁명은 피
할 수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공산주의자의 임무
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을 지도하며, 억압자에
반항하여 분쇄할 날이 속
히 오게 함에 있다. 이것
이 역사의 진행인데, 이것
은 인류가 피할 수 없는
파악적 진화라고 마르크스
는 말하였다.

